



김은경씨

컴퓨터나 게임, 애니메이션에 열을 빼놓고 있는 요즘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는 어른들의 주문은 좀처럼 먹혀들지 않는다. 현대 조앤 K. 롤링이란 무명작가가 '컴퓨터에 빠진 아이를 책벌레'로 만들었다. <해리포터> 시리즈(김혜원, 문학수첩)는 세계 독자들에게 마법을 걸었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독자들에게 문자로 주문을 걸어 책 속으로 빠뜨려버린 것이다.

전세계 7천만 독자 사로잡은 마력의 책

1996년 블룸즈베리 출판사에서 단돈 2천달러로 계약을 맺고 이듬해 첫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출간됐을 때, 롤링은 세계 출판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해리포터와 불의 잔》까지 4권이 출간된 <해리포터> 시리즈는 49개 언어로 200개국에서 출간돼 세계적으로 7천만부 이상 판매됐다.

지난 7월 4권이 전세계에 동시 판매될 때, 영어권 국가의 주요 서점들은 이 책을 사기 위한 인파로 몸살을 앓을 정도였다. 초판 380만부 발행, 아마존의 사전주문 60만부란 수치도 경이적 이거니와 수천명의 어린이들이 서점 앞에서 밤을 새며 이 책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세기적 광경도 연출됐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여름 출간되기 시작해 현재 250만부를 돌파했다.

이처럼 세계 독서계를 강타한 <해리포터> 시리즈가 국내에 뒤늦게 소개된 데는 곡절이 있었



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소문은 국내 출판계에도 빠르게 전파됐다. 눈치 빠른 기획자들이 에이전시를 통해 '입질'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선뜻 국내에 번역·소개하기에는 걸림돌이 많았다. 결국 '대어'를 낚아 올린 기획자는 문학수첩의 김은경 대리(26).

"아마존이나 <뉴욕타임즈> 등의 서평을 통해 이 책을 알게 됐어요. 동화책이 베스트셀러 순위 30주나 오른 이유가 뭘까 궁금했죠. 막상 오피스를 내보내 저작권료가 턱없이 비쌌습니다. 선인세 1만5천달러를 요구하더군요. 마법 이야기가 우리 정서에 맞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어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시리즈가 국내 시장에서도 성공하리라고 확신한 김대리는 경영진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기획안을 다섯 번이나 올렸지만 그때마다 거절당했다. 문학수첩에서 동화책을 낸 경험이 없을 뿐더러 불투명한 시장전망 때문이었다. 끈질긴 설득 끝에 지난해 3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중앙 일간지에 기사가 나가면서부터 국내 독자들의 반응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친척집에서 천덕꾸러기로 키워지다 어느날 갑자기 자신이 마법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법학교인 호그와트로 향하는 고아 소년 해리포터의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시리즈가 독자들을 사로잡은 마력은 어디에 있을까.

"동화는 대개 옛날옛적의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주류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 시리즈는 현실감을 배경에 깔고 있죠. 마법학교 입구가 현존하는

활자문화의 우월성 입증한 마법 이야기

<해리포터> 시리즈 기획한 김은경씨

경기 체감지수가 푹 떨어진 올해 서점계는 '해리포터 효과'로 쏠쏠한 재미를 봤다. 현재 250만부가 넘게 팔려나간 <해리포터> 시리즈의 매력은 현실에 토대를 둔 탁월한 상상력에 있다. 치열한 경쟁 끝에 간신히 저작권을 따낸 기획자 김은경씨는 영상시대에 활자문화의 우월성을 입증한 것이 이 시리즈의 문화적 의의라고 평가한다.

킹스 크로스역이고, 방학과 기숙사 생활이 일상인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매번마다 해리포터가 한 살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독자들이 주인공과 함께 성장한다는 느낌도 얻을 수 있습니다."

탁월한 상상력과 해학적인 요소도 빼놓을 수 없다고 김대리는 지적한다. 보통 동화에서 금기시하는 죽음, 공포, 서스펜스 등이 추리소설적 기법에 녹아 있고, 실수와 해프닝을 연발하는 마법사 이야기 등이 책에서 손을 떼지 못하게 한다.

전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코드

"장대한 스케일 속에 섬세한 세목들이 마치 영화를 보듯이 묘사돼 있죠. 그만큼 작가의 기량이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의 문화적 의의는 영상시대에 활자문화의 우월성이 입증됐다는 사실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열풍은 우리시대에 하나의 '문화적 징후'로도 읽힌다. 지난해 4월 개설한 '해리포터클럽' (www.harrypotterclub.co.kr)은 접속자가 폭주해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다. 현재 15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방문자수가 100만을 넘어섰다. 야후·다음·라이코스 등의 포털 사이트에는 해리포터 관련 개인 홈페이지가 40여개에 이른다.

"네티즌들은 해리포터클럽이 본교고 개인 홈페이지는 분교라고까지 생각해요. 이 책은 해리포터 학교의 교과서라고 말하죠. 이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코드가 마련된 셈입니다." - 박천홍 기자